

■ 살인으로 얼룩진 전남도민체전

술상 뒤엎자 준비한 흥기 휘둘러

체육회 간부 정씨, 범행 후 관용차 불러 타고 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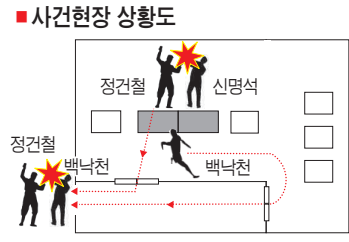
축제 분위기에 취해 치러져야 할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 잔치가 체육회 간부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끔찍한 '유혈극'으로 얼룩졌다.

◇사건 발생=강진 경찰에 따르면 26일 저녁 8시45분께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H식당 방 안에서 체육회 관계자 5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정건철 전남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남씨름협회 백낙천 회장·신명석 전무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정 처장은 이들을 식당으로 불렀다.

몇 분 후 식당에 도착한 신 전무는 정 처장에게 "왜 저에게 이러시느냐?"고 말했고, 정 처장은 "너에게



(순진 신명석씨)



는 감정이 없다"고 했다. 뒤이어 도착한 백 회장은 정 처장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정 처장이 흥기를 소지한 것을 보고 곧바로 상을 뒤엎었다.

정 처장도 이에 맞서 흥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신 전무가 흥기에 인종차별을 질렸고, 백 회장을 다쳤다.

정 처장은 흥기를 들고 백 회장을 뒤쫓다 식당 밖에서 백 회장과 다른 일행 등에 의해 붙잡혀 흥기를 빼앗긴 뒤 곧바로 도주했다.

식당 앞에 쓰러진 신 전무는 곧바

로 강진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고, 손과 머리 등을 다친 백 회장은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처장 도주=정 처장은 범행 직후 체육회 소속 운전자 남모(41)씨가 운전하는 전남 27가 61XX호 관용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운전자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모텔에서 쉬고 있는데 정 처장이 갑자기 일어서 생겨 경기도 안양을 가야한다고 해 데려다 줬다"면서 "정 처장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의 휴대전화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건 의문점=정 처장이 손잡이를 포함한 길이가 41cm인 흥기를 가지고 40분 이상을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

했다는 것과 식당 안팎에 건장한 체육회 관계자 10여 명이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른 정씨를 아무도 잡지 않았고 도주하게 내버려둔 점 등이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운전자 남씨가 정 처장을 태우고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동안 정 처장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 등 다른 궁금증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경찰은 정 처장의 휴대전화로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사팀을 서울로 급파하고, 주변인들을 통해 자수를 설득하고 있다. 국외도주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목격자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진=인현주·김여울기자 ahj@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정건철 사무처장이 휘두른 흥기에 손을 다친 전남 씨름협회 백낙천 회장이 27일 전남대 병원에서 사건 당상을 설명하고 있다.

니원침 (7115) 김종두



■ 전남도체육회엔 무슨 일이...

상임부회장·사무처장 체육회 운영 갈등 폭발

전남도민체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사건은 표면적으로 전남의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전남도체육회 운영 주도권을 행사한 상임부회장에 대한 사무처장의 불만과 이들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2일 도의회의장을 지낸 박병렬(54)씨가 제228차 이사회에서 제15대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체육계내에서 우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체육회 관계자들은 6개월 동안 도체육회를 운영해오던 정 처장이 체육회장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로부터 당시 도체육회를 사무처장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해 고무됐으나 상임부회장이 새로 선임되자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을 했다고 전했다. 비체육인인 정 처장이 출신인데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박 상임부회장이 부임해 오면서 부회장에 대한 불만이 일었고 갈등관계가 빠르게 시작됐다는 것.

특히 상임부회장과 사무처장의 권한은 각 사·도체육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남도체육회의 경우 '체

육회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관장한다.'고 규약에 규정돼 있는 점도 대립을 부추기는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박 상임부회장은 "정 처장에게 운영권한을 다 주었고, 정 처장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처장과 갈등관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하는 주변의 시각에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관계 사이에서 최근 씨름협회가 박 상임부회장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씨를 비난한 것이

참극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25일 씨름협회의 체육회 직원 초청 만찬자리에서 정 처장은 씨름협회 배도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체제로 가야 사무처장 체제로 가면 안된다.", "나이는 사무처장 보다 어리지만 상임부회장을 잘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술을 마시면서 분을 삭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처장은 사건 발생 몇시간전인 26일 오후 6시 30분께 태권도 협회 박모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25일 씨름협회가 전남체육회 직원 초청 만찬자리에서 나를 모욕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이후 정 처장은 사과를 받기 위해 씨름협회 백낙천 회장과 신명석 전무이사를 식당으로 불러 만났으나 두 무이사를 식당으로 불러 만났으나 또 다시 격렬한 말들이 오갔으며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백낙천 전남씨름협회장 일문일단

“흥기 휘두른 사람 말리지 않고 도망치는 나를 누군가 잡았다”

27일 전남도체육회 정건철 사무처장이 휘두른 흥기에 부상을 당한 전남씨름협회 백낙천 회장은 "정 처장이 칼을 들고 쫓아 오는데 내가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백씨의 일문일단.

-사건현장에는 어떻게 가게 됐나.

▲정 처장이 'H식당으로 오라'며 순진 신명석 전무이사에게 2~3차례 전화를 했다. 밤 8시께 식당에 도착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시 격렬한 말들이 오갔으며 결국 휘두르던 흥기를 들고 일어났다.

-밤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때 무얼 했는가.

▲그 누구도 정 처장의 난동을 말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뒤에서 붙잡았다. 현장에서 누군가 "왜 흥기를 든 사람을 잡아가지 도망가는 사람을 잡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도체육회 관계자들은 "누구도 백 회장을 붙잡는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소 정 처장과 사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 예산 지원을 받는 가맹 경기단체가 어떻게 도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해 알기알부 할 수 있겠나. 아마도 정 처장이 오해하고 술에 취해 저지른 것 같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 수천억 사기 전종진씨 국내 송환

옛 기아차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 원 대 사기행각을 벌여 기소됐다가 재판 도중 브라질로 도주한 전종진(국내 전·43)씨가 이르면 다음달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27일 "브라질 대법원이 전씨의 한국 인도를 승인하는 판결을 23일 내려 외교 경로를 통해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송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브라질 법원 판결 이후 60일내 국내 송환될 예정이며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다음달중 국내로 압송돼 복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 파트너 회사 대표였던 전씨는 1996~1997년 타우나, 토피 등 경승용차 수입대금 약 2억 달러를 갖지 않고 현지법인 중재대금 2억 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4억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듬해 7월 출국한 뒤 11월 브라질로 도주했다.

/연합뉴스

주부·가장 생활고 자살 잇따라

사업에 실패, 고민하던 40대 가장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40대 주부가 잇따라 자살했다.

27일 오전 6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압해대교 공사현장 입구 갈대밭에

서 변모(47·목포시 호남동)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화물차 기사 정모(4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 현장에선 "주위를 괴롭힐수 없어 죽을 택한다"는 아내와 아들에

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6시50분께 목포시 산정동 S 아파트 3층에 사는 주부 고모(여·47)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의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중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5일 오전에도 목포시 옥암동 W 아파트에서 주부 홍모(여·36)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둘째(11)·셋째 아들(5)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등 최근 목포에서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개관. 해남군 우항리 공룡박물관이 27일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400여 평 규모로 세계에서 12점 뿐인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 등 200여 점의 희귀 공룡 화석 등이 전시돼 있다. 우항리는 세계 최초로 익룡과 공룡, 새 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 분포돼 천연기념물 제 394호로 지정됐다.

광주 호텔신축 공사장 몽골인 근로자 추락사

27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S관광호텔 신축 공사장 2층에서 작업중이던 몽골인 근로자 윤돈(Yondon nanjiddorj·34)씨가 18m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윤돈씨가 이날 사다리 위에서 승강기 안전시설물 고정 설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인부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명명정전·호수공원 조망 최고 입지!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팀 확대 개편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희재)는 27일 상당수 특례업체들의 구체적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잇따라

접수, 수사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급물 거레에 대한 구체적인 상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충실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큰 일교차, 감기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

4월 28일
 (음 3월 12일)
 ◇전국날씨

서울	9~24℃
부산	9~21℃
대구	12~21℃
대전	9~24℃
광주	6~25℃
제주	6~24℃
목포	6~25℃
여수	6~23℃
진주	8~23℃
창원	7~22℃
대구	7~23℃
부산	7~23℃
인천	4~25℃
대전	6~24℃
광주	6~24℃
제주	6~24℃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12:02 썰물 < 04:45
 여수 밀물 < 07:00 썰물 < 19:20
 00:38 썰물 < 13:07

▲해돋이 05:46 ▲해질 19:15 ▲달출 15:34 ▲달짐 03: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9(일)	30(월)	5/1(화)	2(수)	3(목)	4(금)
최저/최고	11/22	14/18	14/22	11/23	10/23	9/24